

언어행위적 관점에서 본 부정문의 기능들

이상욱(고려대)

1. 서론

‘부정’ Negation¹⁾ 혹은 ‘부정하기’ Negieren, Negierung²⁾는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학에서 부정의 문제는 지금까지 매우 빈번히 다루어왔던 주제들 중 하나이다³⁾. 그러나 ‘부정이 무엇이나’라는 물음에 대한 명백하고 통일된 대답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부정의 범주 Kategorie der Negation 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들이 매우 다양하고, 부정의 현상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었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답변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지난 수 십년 간 언어학에서 부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 역시 매우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된 시각만큼이나 많은 부정의 개념들이 역시 제시되어졌다. 1970년대까지의 부정현상에 관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문법적 현상’으로써 부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부정이라는 개념아래서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부정현상을 문법이라는 틀 안에서”⁴⁾ 설명하고자 하였

-
- 1) 여기서 ‘부정’이라는 용어는 부정하는 행위를 위한 언어적 수단이자,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사용된다.
 - 2) 용어 ‘부정하기’는 의사소통행위 kommunikatives Handeln에서 부정하는 행위의 과정을 나타낸다.
 - 3) 부정의 문제는 이미 고대 이후부터 철학, 신학, 그리고 최근에는 심리학 등에서도 자주 다루어진 주제이다. 그러나 부정의 개념에 대한 일치된 견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제각기 다루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참조, Heinemann, W.(1983): Negation und Negierung. Leipzig. 17쪽 이하; Sang-Wook Lee (1999): Die Negati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Eine konfrontative Untersuchung. Bochum. 13쪽 이하.

다. 전통문법에서는 'nicht', 'kein', 'niemand' 등과 같은 소위 부정어 Negationswörter, Negationsträger⁵⁾에서 출발하여, 이들 부정어를 지닌 문장들, 즉 부정문(negative Sätze)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부정의 영향력을 통사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 문장에서 차지하는 부정어의 위치와 그것에 따른 부정의 범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부정을 부정어의 영향력이 문장전체까지 미치는 '문장부정' Satznegation과 단지 문장에서의 특정한 부분이 부정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부정' Sondernegation, Wortnegation 혹은 Teilnegation으로 구분하고,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부정현상이 갖는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문장성분 문법' Satzgliedgrammatik 그리고 발렌즈 모델의 틀 안에서 부정을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나눈 Helbig/Ricken(1973), 전통문법에서 부정의 문제를 다룬 Duden(1973/1984)이 언어적 부정 현상을 통사적-문법적 현상으로 설명한 예로 볼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정에 관한 연구에서 점차 화용론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전통문법 또는 생성문법에서와 같이 부정어의 영향력을 정확히 구분하거나 그것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는 언어적 부정현상들이 결코 잘 설명될 수 없다는 비판에서 싹트게 되었다. 초기의 발표된 Heidolph(1970), Schmidt(1973) 그리고 Stickel(1975)의 논문에서는 언어적 부정현상이 지닌 통사적 문법적 특징을 의사소통적-화용론적 요소들에 결합시켜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Harweg(1979), Sennekamp(1979), Heinemann(1983, 1986)은 언어적 부정현상의 연구에서 통사적-문법적인 요소는 다루지 않고 순수하게 의사소통적-화용론적 특성만을 분석한다.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부정의 개념, 즉 "의사소통적-화용론적 언어행위의 범주"⁶⁾ eine Kategorie des kommunikativ-pragmatischen Sprachhandelns

4) Brütsch, E.(1986): "Was heißt hier negativ?"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4. 192쪽.

5) Stickel은 부정어를 Negationswörter라는 표현 대신에 Negationsträger라는 표현을 쓴다. 참조. Stickel, G.(1970): Untersuchungen zur Negation im heutigen Deutschen. Braunschweig.

로 이해되는 부정의 연구에서는 부정을 언어체계 Sprachsystem에 속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정은 언어적 형식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행위적 현상인 '부정하기'로 이해된다.

전통문법 Klassische 혹은 학교문법 Schulgrammatik에서의 부정의 연구는 일련의 부정어들의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문법적 범주으로써 부정의 개념은 철저하게 형식적 특성에 따라 규정된다. 이러한 분류법에서 이해되는 언어의 부정 현상, 즉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정문은 기능적으로 이미 부정하는 기능을 지녔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전통문법에서는 형식적 현상과 기능적 현상인 '부정하는 태도' verneinende Einstellung 내지는 '부정하는 기능' negierende Funktion의 1:1대응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 현상에 속하는 분야와 기능적, 화용론적 현상에 속하는 분야의 뒤섞임은 결과적으로 "모든 부정적 어휘들Negativa이 사용된 모든 경우들을 단지 한가지 기능, 즉 부정하기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의 원인이자, 말하자면 모든 부정행위 Verneinen 혹은 Negieren를 형식적 범주인 '부정'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의 부정현상과 관련하여 그 설명을 언어적-의사 소통적 행위의 틀 안에서 행위적 범주으로써의 '부정하기'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특히 '부정적 언어현상들이 실제의 언어행위에서 언제나 부정하는 행위 또는 기능만을 나타내는가?'란 물음에서 출발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화용론적 기능을 지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의 대상인 부정적 언어표현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사 소통행위에서 사용되는 부정문 negative Sätze의 개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 의사소통행위에서 앞선 언어적 표현에 대한 반응으로써 부정문을 사용한 화자Sprecher가, 그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표현을 주었는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인지 혹은 어떤 사태Sachverhalt에 대한 서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고 보면, 이 앞선 표현에서 나타나는 상대의 입장 역시

6) Nussbaumer, M / Sitta, H. (1986): "Neuere Arbeiten zur Negation im Deutschen." In: Deutsche Sprache 14. 60쪽.

7) Kürschner, W.(1983): Studien zur Negation im Deutschen. Tübingen. 12쪽.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부정문 개념의 모호성

지금까지의 문법이론들에서 행해진 문장범주의 분류들에서 그 하위범주들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 다른 것들과 비교해볼 때 부정문 negative Sätze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애매 모호한 것도 없을 것이다⁸⁾.

이와 같은 사실은 '외연적'extensional 관점에서 뿐 만 아니라 '내연적'intensional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주장문' Behauptungssatz 의 범주 안에서 부정문의 개념 정의, 또는 소위 '긍정적 주장문' positiver Behauptungssatz 과의 구분이 그리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어떤 한 문장을 부정문이라 판단할 수 있는 외연적 근거는 소위 부정어 Negationswörter의 존재 유무이다. 이런 외연적 기준에 따르면 'nicht', 'kein', 'nichts', 'niemand', 'nie' ...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을 지닌 모든 문장이 도이취어에서의 부정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언어들에 지니고 있는 이런 부정적 표현들 전체는 비교적 작은 규모이며, 이 표현들이 부정문의 판단을 위한 외연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런 외연적 근거에 따라서 부정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문의 개념이 단지 위에서 언급한 명백하게 부정어로 간주되는 부정적 표현들을 지닌 문장들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소위 부정 접두어 예를 들어 'un-', 'miß-', 외래어에서 온 'a-', 'des-' 등등 그리고 부정 접미어 '-los' 등과 결합된 언어적 표현들이 나타나는 문장들, 아

8) 부정적 주장문 개념이 외연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미 문장의 하위 범주로써 분류되는 다른 유형의 문장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문장을 '의문문', '명령문', '주장문'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나눈 일반적인 구분에서,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부정문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참여하며, 참여한다면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는 문제는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Harweg, R. (1979): "Sind negative Behauptungssätze immer Verneinunge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7. 279쪽 이하.

니면 더 나아가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취급되는 어휘들 예를 들어 ‘falsch’, ‘leugnen’, ‘Mangel’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이 포함된 문장들에까지도 적용되어 이러한 문장들 모두를 부정문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기준, 즉 부정어의 존재유무에 따른 판단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부정문을 쉽게 인식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부정문의 개념정의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양적 기준에 따른 판단만으로는 그러나 부정문의 개념을 완전히 정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개의 부정적 언어적 표현들이 나타난 문장들에서 과연 ‘부정성’ Negativität 혹은 ‘부정의 효과’ Negationswirkung에 대해 물을 때 나타난다. 다음의 문장 1)과 2)는 외연적 기준에 따르면 명백한 부정문이다. 그러나 두 문장들에서 부정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 Ganz unmöglich ist es nicht. (M. S.115)
- 2) Nicht ohne Würde trug er auf seinen Schultern die hohe Zivilisation. (M. S. 46)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부정문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문법학자들은 외연적 기준 외에, 부가적 기능으로써 부정성⁹⁾ 즉 의미론적, ‘내연론적’ 특성을 끌어들인다. 이러한 내연론적 근거는 어떤 한 어휘가 부정적 의미를 지녔는지를 판단하여, 그런 언어적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간주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일반적으로 ‘동어적 관계’ synonyme Beziehung를 든다. 즉 이러한 어휘들이 나타나는 문장은 부정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장 역시 부정문으로 간주된다. 이것에 따르면 문장 3) Karl verhält sich falsch는 문장 4) Karl verhält sich nicht richtig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9) 여기서 부정성은 결코 어떤 명백한 기준의 따라 정의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이 대충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는 믿음 등에 따라 판단된 개념으로 역시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수 있으며, 이런 관계에 근거하여 어떤 부정어도 지니지 않은 문장 3)이 부정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아무런 부정어도 지니지 않은 문장 5) *Karl ist gut* 역시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역시 부정어를 지닌 문장 6) *Karl ist nicht schlecht*와 명백한 동의어적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의어적 관계에 따른 교환 가능성에 근거하여 ‘falsch’ (‘nicht richtig’와 교환가능하기 때문에)를 부정적 어휘로 분류한다면, ‘nicht schlecht’와 교환 가능한 ‘gut’, 혹은 ‘nicht fasten’과 같은 의미를 지닌 ‘essen’ 또한 부정적 어휘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한 어휘가 부정어를 지닌 문장과 동의어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어휘의 부정성 내지는 긍정성을 판가름하고, 그와 같은 어휘가 나타난 문장을 부정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부정문의 개념규정에 따라서 부정성 혹은 그것의 대립개념인 긍정성 등을 명백한 개념 규정 및 서로 간의 구분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본 논문의 목적이 정확한 부정문의 개념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흔히 부정문으로 간주하는 부정적 주장 문이 실제의 언어행위에서 어떤 기능을 갖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정문이라 함은 단순히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순수한 부정어¹⁰⁾, 혹은 부정적 접두어, 접미어 등과 결합된 언어적 표현들 그리고 부정적 전치사 등이 나타나는 문장을 의미한다.

10) 전통문법에서는 도이취어가 지닌 부정어로 다음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을 든다:

nicht	nie	nirgends	kein
nichts	niemand	nirgendsw	keinesfalls
	niemals	nirgendsw-(hin, her)	keineswegs
			nein, weder - noch

부정적 전치사로 ‘ohne’ 등이 있다.

Duden(1973/1984); Helbig/Buscha(1991); Helbig/Albrecht(1990) 참조.

3. 부정적 주장문의 의사소통적-화용론적 기능들

부정의 문제는 실제의 언어행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이미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직은 불가능한 어린 시절에 벌써, 자신이 싫어하는 또는 피하고자 하는 자극으로부터 방어적 표현, 즉 “거부자세”¹¹⁾ Ablehnungshaltung의 표현을 몸짓이나 울음 등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부정하는 행위의 표시로 간주 될 수 있는 방어적 태도는 그러나 언어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언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어진 주변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때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언어학에서 있어온 부정에 관한 연구들, 특히 부정을 통사적 범주로 이해하는 연구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어적 태도와 부정의 방법들 사이의 관계는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의사 소통적 기능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부행위는 언어적 의사소통행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부정하기’ Negieren로 다시 나타난다. 부정의 문제를 화용론적-의사 소통적 관점에서 풀고자한 연구들에서는 부정문이 지닌 부정하기 기능, 즉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틀 안에서의 행위론적 범주으로써 ‘부정하기’ 현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는데 크나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부정하기’ 기능은 는 언제나 실제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관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정현상은 언어적 의사소통행위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 혹은 부분적 대립관계”¹²⁾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앞선 언어적 단위를 부정하는 단위으로써 부정문을 내세움으로써,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사 소통적 행위들이 단순화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발화행위으로써 ‘부정하기’는 언어행위적, 텍스트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범위가 문장 수준에 머무는 “미시 구조적 발화행위”¹³⁾ mikrostruktueller Sprechakt이다. 다시 말해 부정하기의 개념은

11) Heinemann, W.(1987): “Negation und kommunikatives Handeln. ”In: I. Rosengren.(Hg.): Sprache und Pragmatik. Lunder Symposium 1986. Stockholm. 22 쪽.

12) Brüttsch, E.(1986). 196쪽.

근본적으로 문장길이에 달하는 언어적 표현들과 결합되어 있다.

언어적 행위에서 그러나 부정어를 지닌 부정문이 언제나 의사 소통적 기능 ‘부정하기’를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7) Karl wohnt nicht in Frankfurt.

8) Karl wohnt in Frankfurt.

부정어를 지닌 부정문 7)은 언제나 ‘부정하기’ 기능을 지녔으며, 반대로 어떤 부정어도 갖지 않은 문장 8)은 부정하기 기능을 지니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만약 문장 8)이 ‘Wohnt Karl in Köl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장 8)은 명백하게 ‘부정하기’ 기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문장 7)이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사소통적 기능 ‘부정하기’를 나타내지만, ‘Karl wohnt nicht in Frankfurt’ 라는 대화의 상대자에게 의해 앞서 주어진 문장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경우 문장 7)이 ‘부정하기’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부정어는 단지 의사 소통적 범주인 ‘부정하기’를 실현하는 잠재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의사 소통적 기능인 ‘부정하기’는 반드시 부정어가 나타나는 부정문에서만 실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정하기’는 “통사적 범주”¹⁴⁾로서가 아닌 “화자의 의사 소통적 행위, 언어적으로 (매우 드물게는 비언어적으로) 앞서 주어진 행위에 대한 화자의 입장”¹⁵⁾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부정하기 기능의 주요 본질을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앞서 이미 자신의 언어행위 상대에 의해 주어진 것에 대

13) Harweg, R.(1979). 286쪽. 그와는 달리,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전체 텍스트까지 뻗치는 발화 행위 Sprechakte는 거시 구조적 makrostrukturelle 발화 행위이다. 이런 거시 구조적 발화 행위의 예로는 얘기꾼의 발화행위를 들 수 있다. 얘기의 주제가 많은 적든 서로 관련되는 텍스트들의 통합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같은 책. 286쪽 이하 참조.

14) Heinemann, W.(1986). 89쪽

15) 같은 책, 89쪽

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언어적 수단(혹은 어떤 다른 행위적 방법들, 예를 들어, 고개를 젓는 행위 같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입장의 표시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수정하거나 제한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언표내적illokutionär 관점에서 소위 부정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16)

부정어는 따라서 실제의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상대방의 태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미 언급한 부정하기 과정에 대한 신호로써 기능한다. 부정어는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적 지시, 어떤 특정한 명제적 복합체 Propositionskomplexe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인식적 혹은/그리고 의사 소통적 과정을 멈추게 하여, 이런 방해작용과 관련된 의미적 것들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상대방의 입장이 맞지 않다고 (타당하지도, 적합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등등)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1. 부정문의 서로 다른 기능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는 부정문을 말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대상 혹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문은 단지 이미 화자 혹은 대화 상대자의 ‘명제적 입장’ propositionale Einstellung에서 예견되는 내용들을 표현한다17). 그러나 의사소통에 사용된 부정문의 기능은 단순히 이런 ‘부정하는 기능’ negierende 혹은

16) Heinemann, W.(1986). 89쪽.

17) 어떤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Karl kommt am 27. April nicht’라는 문장을 말한다면, 그는 이미 Karl이 4월 27일 온다는 것을 예상했거나, 희망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는 자신의 대화상대 혹은 제 3자가 동일한 사실을 예상했거나 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정문은 화자 혁신적innovatorisch이지도, 청자 혁신적이지도 않다. 이점에 대해서는 Zifonun, G.(1976):“Pragmatik der Negation.” In:R. Kern.(Hg.): Löwen und Sprachtigger. Akten des VIII. Ling. Koll. Löwen. S.106. 참조.

verneinende Funktion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부정문이 지닌 여러 기능들은 하아백의 1979년의 논문 ‘Sind negative Behauptungssätze immer Verneinungen?’ 과 하이네만의 1983년의 연구논문 ‘Negation und Negierung. Handlungstheoretische Aspekte einer linguistischen Kategorie.’에서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된다¹⁸⁾. 이들은 부정문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부정문의)청자의 (말하기) 행위,
- 2) 화자의 부정하는(말하기) 행위 그리고
- 3) 화자의 부정하기에 대한 청자의 반응

이와 같이 선행하는 구조 “Antecedens-Strukturen”와의 관계에서 부정문의 기능을 명백한 ‘부정하기’기능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명백히 ‘부정하기’ 기능을 지니지 않은 부정문을 다시 ‘반대하기’ Widersprechen, ‘금지하기’Verbieten, ‘수정하기’Korrigieren, ‘거부하기’Verweigern 등등으로 세분화한다. 여기서는 이들에 의해 제시된 부정문의 기능들을 실제의 예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통시대적 그리고 공시대적으로 대답하여 주어진 강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1.1. 부정하기 Verneinen, Negieren

의사소통적 기능 ‘부정하기’는 부정문이 실제의 대화상황에서 대화 상대

18) Sennekamp 역시 1979년의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부정문의 여러 기능들을 의사소통적, 화용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논문제목이 말해주듯 하아백이나 하이네만과는 달리 부정문의 기능을 단지 두 사람의 대화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의사소통상황에서만 국한시킨다. 이로써 보다 정확한 부정문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적 조건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흠이 있다. 참조. Sennekamp, M.(1979): Die Verwendungsmöglichkeiten von Negationszeichen in Dialogen. München. 1979. 특히 84쪽 이하.

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문문 형식의 앞선 발화행위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때 나타난다. 그와 같은 화자에 의해 주어진 부정문, 하아백의 표현에 따르면 ‘부정적 으뜸 주장문’ negative Behauptungssätze은 일반적으로 소위 전통문법에서 부정어로 여겨지는 부정어들, ‘nicht’, ‘kein’, ‘niemand’ 등과 같은 표현들을 포함한다.¹⁹⁾

- 9) Sp: Ich möchte telefonieren
 Ge: (Möchten Sie) Zum Arzt (telefonieren)?
 Sp: Nein (, ich möchte nicht zum Arzt telefonieren). (B. S.132)
- 10) Ge: Ist das viel?
 Sp: (Nein,) Es ist nicht viel. (B. S.127)
- 11) Ge: (Trägt sie) Einen Ring?
 Sp: Nein, sie trägt keinen (Ring). (M. S.189)
- 12) Ge: Ist wirklich alles verloren?
 Sp: (Nein,) Nichts war verloren.

화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완전한 문장 또는 단지 문장 등가어 Satzäquivalent ‘nein’으로 표현으로 실행하는 이런 부정적 표현들은 청자에 의해 앞서 주어진 소위 긍정적 결정의문문 positive Entscheidungsfragen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된다. 화자는 그와 같은 부정적 대답을 함으로써 질문에서 가정되는 사태 Sachverhalt 혹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부정하는 입장을

19) 인용된 대화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을 Sp (Sprecher)= 부정문의 화자; Ge (Gesprächspartner)= 화자에 의해 표현된 부정문의 청자로 표시한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된 부분을 가리킨다. 여기서 든 모든 출처가 표시된 모든 예들은 Sang-Wook Lee(1999)에서 따온 것임을 밝혀둔다.

표시의 의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의사소통적 기능 ‘부정하기’는 바로 부정하는 과정으로써, 다시 말해 앞서 주어진 결정의문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문 9)에서 화자는 앞서 주어진 질문에서 전제되는 내용 ‘Sie möchten zum Arzt telefonieren’을 화자는 부정문으로써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려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하기’는 부정하는 대답으로 표시되는 질문-대답관계의 한 경우를 보여 준다.

앞서 대화 상대자에 의해 주어진 결정의문문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끔 하는 조건들을 밝혀낼 수 있다. 대화 상대자는 다시 말해 그 질문 속에 포함된 내용 혹은 사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알려고 한다. 그는 이점과 관련하여 화자에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 소통적 기능 ‘부정하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청자가 질문내용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대화 상대자에게 알려 주고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하며, 둘째로 화자가 자신에게 그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대화 상대자가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전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적 행위 ‘대답하기’는 이미 질문에서 상반된 대답가능성들로 포함된 두 가지의 명제들, 즉 긍정적 명제와 부정적 명제 중 그 어느 하나를 통해 실현된다. 화자는 부정적 주장문을 통해 자신이 두 개의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명제들 중 질문내용과 대립관계에 있는 부정적 명제를 선택한다. 예문 11)에서 화자는 대화 상대자가 한 질문에 이미 포함된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두 명제들 ‘sie trägt einen Ring’과 ‘sie trägt keinen Ring’ 중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정적 주장문의 ‘부정하기’ 기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화자와 대화 상대자 사이에는 “입장충돌”²⁰⁾ Einstellungskonflikt 가 아닌 질문내용의

진실여부의 판단 혹은 가치와 관련하여 대화 상대자의 “불확실한 입장”²⁰⁾ Einstellungsunsicherheit이다.

부정적 주장문은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 결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제시된 결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13) Ge: Und danach blieb er also nicht länger?

Sp: Nein, länger nicht. (M. S.785)

14) Ge: Dich friert wohl gar nicht?

Sp: Uns friert nicht.

긍정적 명제 또는 부정적 명제를 가능한 대답으로 갖는 긍정적 결정의 문문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주어진 결정의문문에는 질문을 한 대화 상대자가 이미 화자에게서 나올 가능한 대답에 대한 기대 혹은 추측이 포함되어 있다. 예문 12)에서 대화 상대자는 부정적 결정의문문을 통해 화자에게서 긍정적인 대답, 즉 ‘danach blieb er länger’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화 상대자는 부정적 결정의문문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대답을 반대로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정의문문을 통해 대화 상대자는 화자가 질문내용에 대립하고 있는 자신의 예상대답 혹은 기대 대답을 증명해주길 예상한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화자는 부정적 질문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그것은 동시에 대화상대자의 예상이 맞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 주장문은 긍정적 결정의문문에 대한 대답과는 달리 ‘불분명한 부정하기’ 기능을 갖는다.

20) Heinemann, W.(1983). 113쪽.

21) 같은 책 114쪽.

3.1.2. 반대하기 *Widersprechen*

화자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이미 앞서 주어진 대화 상대자의 주장에 반응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 주장문은 의사소통행위에서 ‘반대하기’ 기능을 지닌다. 이와 같은 부정적 표현은 ‘부정하기’ 기능에서와 같이 부정어를 지닌 문장에 의해 실현된다:

- 15) Sp: Bin ich gut zugedeckt?
 Ge: Sei ruhig, du bist gut zugedeckt.
 Sp: Nein. Du wolltest mich zudecken, das weiß ich,
 aber zugedeckt bin ich noch nicht.
- 16) Ge: Komm, es ist Zeit, zu Bett gehen.
 Sp: Es ist überhaupt keine Zeit (, zu Bett gehen).
- 17) Ge: Das klingt wie Abschied.
 Sp: Nein (, das klingt nicht wie Abschied), warum Abschied?

부정적 주장문이 의사소통적 기능 ‘반대하기’를 지니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표현으로써 대화 상대자에 의해 긍정적 주장이 반드시 주어지야만 한다. 화자는 부정적 주장문을 실현함으로써 이미 주어진 대화 상대자의 긍정적 주장에 대해 반대적 혹은 거부적 반응을 나타낸다. ‘반대하기’ 기능 속에는 이미 대화 상대자의 표현을 통해 주어진 사태 혹은 내용이 그것에 대한 화자의 지식 또는 입장과 반대적 관계에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있다. 예 15)에서 화자는 부정적 주장문을 통해 앞서 주어진 화자의 주장 ‘du bist zugedeckt’이 자신의 갖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사 소통적 기능 ‘반대하기’에는 화자와 대화 상대자 사이에 ‘입장충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있다. 화자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대화 상대자에 의해 주어진 언어 행위에서 나타난 주장 내지는 가정이 옳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취급한다. ‘반대하기’ 기능에는 화자와

대화 상대자 사이에 어떤 한 사태에 대해 서로 반대적(konträr) 입장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반대하기' 기능을 지닌 부정적 주장문에서 서로 다른 강도를 지닌 반대적 입장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 예 15), 16)에서는 그의 반대적 태도는 특히 강한 강도로써 표시된다. 부정적 표현을 통해 이 경우 화자는 대화 상대자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 Protestieren한다. 화자는 대화 상대자에게 속히 그의 주장을 수정할 것을 바란다. 이와는 달리 예 17)에서 반대하는 강도는 비교적 약하다. 이 경우 화자는 자신의 의심 Zweifeln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에서는 '반대하기' 기능을 지닌 부정적 주장문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8) Ge1: Oder ekeln Sie sich. Sagen Sie es nur.

Sp: Nein, ich ekele mich nicht.

Ge2: Sie müssen sagen, wenn es Sie ekelt, wir sind nicht böse, die meisten ekeln sich.

Sp: Nein, ich ekele mich nicht.

19) Ge1: Und danach blieb er also nicht länger?

Sp: Nein, länger nicht.

Ge2: Doch, (er blieb doch) länger.

Sp: Nein, (er blieb) nicht länger.

예 18)에서 화자에 의해 실현된 첫 번째 부정적 주장문(제 1 주장 하아백의 표현에 따르면 Primärbehauptung)은 제 1 대화 상대자에 의해 주어진 긍정적 결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의사 소통적 기능 '부정하기'을 지닌다. 화자에 의해 주어진 두 번째 부정적 주장문(제 3 주장, 하아백의 표현에 따르면 Teritiärbehauptung)은 그와는 달리 또 다른 대화 상대자에

의해 주어진 주장(제 2 주장, 하아벡의 표현에 따르면 Sekundärbehauptung), 즉 의사 소통적 기능 '부정하기'를 지닌 화자에 의해 실현된 제 1 주장을 거부하는 주장을 다시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자에 의한 제 3 주장은 제 1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의 의사소통상황에서 화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주어진 제 2 주장은 예 18), 19)와는 다른 의사 소통적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²²⁾

20) Sp: Diese Dinger sind doch nicht sehr hoch.

Ge: Doch, sie sind hoch.

Sp: Nein, sie sind nicht hoch.

21) Ge1: Wer sagte das dem Neffen?

Sp: **Niemand** (sagte das ihm).

Ge2: Doch, **irgendeiner** sagte das ihm.

Sp: Nein, niemand sagte das ihm.

예 20)에서 화자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제 1 주장을 실행한다. 이 부정적 주장에 대해 대화 상대자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의 제 2 주장을, 즉 긍정적 주장문으로 표시한다. 화자는 이 주장에 대해 다시 부정적 표현을 통해 반대입장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화자에 의해 실현된 그의 두 번째 부정적 주장, 실제 의사 소통에서는 제 3 주장에 해당되는 이 부정적 주장에는 이미 언급한 의사 소통적 기능 '반대하기' 외에 또 다른 부가적 기능이 참가될 수 있다. 그 기능은 부정적인 제 1 주장의 기능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예 20)에서는 화자에 의해 실현되는 제 1 주장은 단순한 부정적인 주장을 나타낸다. 즉 '부정하기' 기능을 지닌 결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부정적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제 2의 부정적 주장을 사용함으로써, 앞선 화자의 긍정적 주장에 대한 반

22) 진하게 표시된 부분에는 강세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의 입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 번째 부정적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 21)에서는 제 3 주장인 화자의 부정적 주장문에는 앞선 대화 상대자의 긍정적 주장에 대한 ‘반대하기’ 기능과 더불어 자신의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인 제 1 주장을 강조하는 기능이 주어진다.

3.1.3. 정확하게 하기 Präzisieren

의사 소통적 기능 ‘정확하게 하기’ 기능 역시 앞서 주어진 구조 속에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 22) Ge1: Ist der Bischof **populär**?
 Sp: Nein, (er ist nicht populär,) er ist unpopulär.
 Ge2: Nein, (er ist **nicht** unpopulär,) er ist **populär**.
 Sp: Nein, (er ist **nicht** populär,) er ist unpopulär.
- 23) Ge: Der Mann ist **Christ**.
 Sp: Nein, (er ist **kein** Christ,) er ist Nichtchrist.
- 24) Ge1: Ist der General **ungesund**?
 Sp: Ja, er ist **ungesund**.
 Ge2: Nein, (er ist **nicht** ungesund,) er ist **gesund**.
 Sp: Nein, (er ist **nicht** gesund,) er ist **ungesund**.
- 25) Ge1: Wie ist Ihre Mutter?
 Sp: Sie ist ungesund.
 Ge2: Nein, (sie ist nicht ungesund,) sie ist **gesund**.
 Sp: Nein, (sie ist nicht gesund,) sie ist ungesund.

예 22)에서 화자는 부정적 표현 ‘nein’으로 시작하는 표현으로써 앞선 긍정적 결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실행한다. 그러나 그의 제 1 주장으로 분

류되는 이런 대답에서는 앞서 언급한 예 9)-12)에서 앞선 긍정적 결정의 문문에 대해 화자가 반응한 대답과는 다른 의사소통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정하기’ 기능 외에 부가적 기능으로써 ‘정확하게 하기’ 기능이 나타난다. 예 12)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화자는 먼저 ‘nein’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먼저 대화 상대자에 의해 앞서 주어진 질문내용이 맞지 않다는 점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nein’에 의해 실현된 그의 부정적 제 1 주장은 의사 소통적 기능 ‘부정하기’가 실현한다. 그것에 곧 이어 앞선 대화 상대자의 질문내용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소위 부정적 접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경우 ‘nein’에 의해 시작되는 주장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략되게 된다. 따라서 ‘부정하기’ 기능은 단지 ‘nein’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부정어 ‘nein’에 뒤따라오는 부정적 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 표현들 역시 앞서 주어진 조건들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 표현들은 앞서 주어진 언어적 표현이 지닌 서로 다른 의사 소통적 기능에 따라 그것이 갖는 일차적 의사 소통적 기능 외에도 부가적으로 주어진 기능들을 지니기도 한다. 예 23)에서 대화 상대자의 긍정적 주장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부정적 표현 ‘nein’에서 표현된 반대의 입장이다. 곧 이어 화자는 자신의 반대적 입장을 부정적 접두어 ‘nicht-’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 주장문으로써 보다 정확히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기’ 기능 외에도 이런 반대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기능, 말하자면 ‘수정’Korrektur 이라는 의사 소통적 기능이 나타난다. 예 24)에서 화자의 제 3 주장은 ‘반대하기’ 기능 외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동시에 앞선 구조에서 표시된 ‘긍정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예 24)에서 화자는 자신의 제 3 주장을 나타내는 부정적 표현에서, 먼저 ‘nein’으로써 앞서 주어진 대화 상대자의 주장에 대해 반대적 입장을 표시한다. 곧이어 부정적 접두어 ‘un-’을 지닌 부정적 표현으로 자신의 이런 반대적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하며, 이것은 동시에 자신에 의해 앞서 주어진 대화 상대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제 1 주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다시 강하게 뒷받침한다. 같은 방식의 분석을 통해 예 22), 25)

역시 설명될 수 있다. 22)에서는 화자가 실현한 제 3 주장은 먼저 'nein'에 의해 앞서 주어진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현하다. 이어진 부정 접두어 'un-'을 포함한 표현에서 화자는 자신의 반대적 입장은 보다 정확하게 된다. 앞서 자신에 의해 주어진 '부정하기'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문장 'er ist unpopulär'를 강조하는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3.1.4. 주장하기 *Behaupten*

실제의 의사소통행위에서 부정적 주장문은 종종 앞서 주어진 제 1 주장으로 사용된다:

26) > Soll ich etwas abholen? <, sagte Fred leise, > Kaffe vielleicht, es ist nicht weit zum Bahnhof. <

> Nein <, sagte sie, > bleib bei mir. < (B. S.123)

27) > Würden sei bitte im voraus zahlen, es ist <,... > wir gehen sicherer dabei - so nahe am Bahnhof, und Sie haben kein Gepäck. <

> Natürlich <, sagte ich. (B. S.94)

예 26), 27)에서 보듯이 부정적 주장문으로 사용되는 부정적 표현은 대화 상대자에 의해 주어지는 어떤 앞선 구조들도 필요치 않는다. 도이취어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지닌 문장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어들, 즉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정어들, 소위 부정 접사, 전치사 등을 지닌 모든 주장문에 실현된다.

3.1.5.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하기 *Antworten auf Wortfrage*

부정적 주장문으로 화자는 대화 상대자에 의해 제시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 이 경우 화자에 의해 실현되는 부정적 주장문은 전통문법에서 부정어로 간주되는 언어적 표현들을 포함한다:

- 28) Ge: Wie hat er dir **gefallen**?
Sp: Der Kleine? (Nein, er gefällt mir) Nicht **gut**. (M. S.527)
- 29) Ge: Wer **sagte** dem Neffen, daß der Onkel gewillt sei,
den Vortrag zu besuchen?
Sp: **Niemand** (sagte ihm es).

3.1.6. 동의하기 **Zustimmen**

의사 소통적 기능 ‘동의하기’는, 화자가 부정적 표현으로 어떤 한 사태의 판단이 앞서 주어진 대화 상대자가 그것과 동일한 사태에 대해 내린 판단과 같다는 사실을 표시하고자할 때 나타난다:

- 30) Ge: **Das** darf man nicht den Beamten vorwerfen.
Sp: Nein, das (darf man) nicht (den Beamten vorwerfen).
- 31) Ge: Krankenschwestern streiken nicht dauernd - die sind keine **Beamten**.
Sp: Das ist **richtig** (, die sind keine Beamten).

화자에 의해 실현된 부정적 표현이 의사 소통적 기능 ‘동의하기’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 30)과 31)에서 나타나듯이 대화 상대자에 의해 실현된 어떤 한 사태에 대한 부정적 주장을 표현하는 부정적 주장문이다.

대화 상대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제 1 주장으로써 먼저 문장에서 나타난 내용이 자신의 지식에서 판단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화자는 부정적인 제 2 주장을 실행함으로써 앞서 주어진 부정적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화자는 앞서 주어진 대화 상대자의 주장이 관계된 사태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따른 판단과 일치함을 부정적 표현을 실행하여 확인한다.

3.1.7. 거부하기 Verweigern

의사 소통적 기능 거부하기는 화자가 앞서 주어진 대화 상대자의 언어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그의 요구를 차단하고자할 때 사용되는 부정적 표현에서 볼 수 있다:

32) Ge: Kommen Sie mit.

Sp: Nein (, ich komme nicht mit).

33) Ge: Hör auf, Fred, bitte hör auf.

Sp: Oh, nein, ich höre nicht auf.

34) Ge: Sag alles den Kindern, vergiß es nicht bitte, und erzähle ihnen von der Schokolade.

Sp: Ich kann nicht.

예 32)-34)에서 보듯이 부정적 주장문이 '거부하기' 기능을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 상대자에 의해 실행된 명령 또는 요구의 뜻을 지닌 언어적 표현이 전제 조건이다.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 표현으로 이와 같이 대화 상대자에 의해 제시된 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부정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우 '반대하기' 기능에서처럼 화자와 대화 상대자 사이에 입장충돌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대하기'에서와는 달리 대화 상대자가 언어적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의도를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 문장을 통해 거절한다. '부정하기' 기능을 지닌 문장에서는 그와는 달리 대화 상대자가 어떤 사태에 관해 갖고 있는 입장을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 표현으로써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다.

화자는 부정적 표현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요구들을 거절한다. 예 32), 33)에서는 행동할 것에 대한 요구를, 예 34)에서는 언어적 행위인 '정보전달' Informieren에 대한 대화 상대자의 요구가 거절된다.

4. 결론

의사소통적-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 (혹은 부정적 표현, 부정적 주장문)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의사 소통적 언어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행위를 통해 화자는 언어 행위적 상황에서 대화 상대자에 의해 앞서 주어진 것에 대한 자신의 다양한 입장을 표현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화자에 의해 사용된 부정적 주장문이 단순히 대화 상대자에 의해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앞서 주어진 언어적 행위에서 표현된 내용을 단순히 부정하는 기능만을 지녔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예를 통한 설명에서 보아 왔다. 부정적 주장문은 오히려 주어진 언어행위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다양한 의사 소통적 기능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rütsch, E.(1986): "Was heißt hier negativ?"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4. S.192-203.
- Duden (1973/1984): Duden.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3. und 4. Aufl. Mannheim.
- Harweg, R.(1979): "Sind negative Behauptungssätze immer Verneinunge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7. S.279-303.
- Heidolph, K.E.(1970): "Zur Bedeutung negativer Sätze." In: M. Bierwisch/K. E. Heidolph (Hg.): Progress in Linguistics. Den Haag. S.86-101.
- Heinemann, W.(1983): Negation und Negierung. Leipzig.
- ders.(1987): "Negation und kommunikatives Handeln." In: I. Rosengren (Hg.): Sprache und Pragmatik. Lunder Symposium 1986. Stockholm. S. 225-252.
- Helbig, G./Albrecht, H.(1990): Die Negation. 5. Aufl. Leipzig.

- Kürschner, W.(1983): Studien zur Negation im Deutschen. Tübingen.
- Nussbaumer, M./Sitta, H.(1986): "Neuere Arbeiten zur Negation im Deutschen." In: Deutsche Sprache 14. S.58-84.
- Sang-Wook Lee(1999): Die Negati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Eine konfrontative Untersuchung. Bochum.
- Schmidt, S. J.(1973): "Texttheoretische Aspekte der Negatio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 S.178-208.
- Sennekamp, M.(1979): Die Verwendungsmöglichkeiten von Negationszeichen in Dialogen. Ein dialoggrammatischer Ansatz mit empirischer Überprüfung an Texten gesprochener deutscher Standardssprache. München.
- Stickel, G.(1970): Untersuchungen zur Negation im Deutschen. Braunschweig.
- ders.(1975): "Einige syntaktische und pragmatische Aspekte der Negation." In: H. Weinrich(Hg.): Positionen der Negativität. München. S.17-38.
- Zifonun, G.(1976): "Pragmatik der Negation." In: R. Kern(Hg.): Löwen und Sprachtigger. Akten des VIII. Ling. Koll. Löwen. S.99-109.

Zusammenfassung

Funktionen negativer Behauptungssätze in kommunikativen Sprechhandlungen

Lee, Sang-Wook(Korea Univ.)

In den kommunikativen orientierten Sprechbehandlungen lassen sich

negative Sätze allgemein als Klasse kommunikativer Operationen mit spezifischen kommunikativ-pragmatischen Funktionen kennzeichnen. Diese Funktionen, die der Sprecher mit den sogenannten negativen Behauptungssätzen in wirklichen kommunikativen Sprechakten ausdrückt, stellen dabei Handlungs- bzw. Sprechhandlungsintentionen des Sprechers dar. Sie können aus den in negierten Äußerungen implizierten Sprecher-Einstellungen zu bestimmten Sachverhalten, die in den vorangehenden Äußerungen seines Gesprächspartners ausgedrückt werden, abgeleite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sind die negativen Behauptungssätze erst dann sinnvoll darzustellen, wenn sie mit Voraussetzungsstruktur verbunden werden. D.h. also die Funktionen der negativen Behauptungssätze können im Zusammenhang mit einer (bzw. mehreren) vorangehenden Äußerung(en) des Gesprächspartners oder den aktuellen Sprechhandlungsumständen besser erklärt werden. Aus solchen kommunikativen Situationen kann man bestimmte Einstellungen des Gesprächspartners annehmen.

So haben wir negative Behauptungssätze, die mit den in Grammatiken angenommenen verschiedenen Negationswörtern verwirklicht werden, in die Subkategorie der Sprechhandlungen eingesetzt, um ihre sinnvollen Funktionen zu bezeichnen. Dabei stellen wir fest, daß den negativen Behauptungssätzen nicht nur eine Sprechhandlung 'Verneinen' zuzuordnen ist. In den aktuellen Sprechhandlungen zeigen sie auch die anderen kommunikativ-pragmatisch orientierten Funktionen. Wir klassifizieren nun die folgenden illokutionären Typen: 1) Verneinen (bzw. Negieren); 2) Widersprechen; 3) Präzisieren (oder Korrigieren); 4) Behaupten; 5) Antworten auf Wortfrage; 6) Zustimmung; 7) Verweigern